

2024.08.08.(목) 증권사리포트

주성엔지니어링

차원이 다른 수익성

[출처] 하나증권 김민경 애널리스트

2Q24 Review: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주성엔지니어링의 24년 2분기 매출은 973억원(YoY +207.3%, QoQ +72.1%), 영업이익 361억원(YoY 흑자 전환, QoQ +413.7%, OPM 37.1%)을 기록. 반도체, 디스플레이 매출이 각각 957억, 42억을 기록 영업 이익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는데 [1] 외형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 [2] 중국 고객사향 반도체 장비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상회한 것이 주 요인으로 추정(기존 추정치 70%대) 1분기에는 중국 고객사 FAB 일정이 지연되며 일부 매출이 지연된 바 있으나 2분기부터는 장비 출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국내 고객사의 경우 국내와 중국 FAB 모두 장비 출하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출하가 더욱 증가할 전망

2H24 Preview: 국내 매출 비중 증가 전망

주성엔지니어링의 24년 연간 매출액은 4,175억원(YoY +46.6%), 영업이익은 1,216억(YoY +320.6%, OPM 29.1%)으로 전망. 기존 추정치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 14% 상향 부문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매출이 각각 3,713억원, 462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향 장비 출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국내 고객사향 장비 출하가 집중되어 있어 전사 매출 내 국내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부문은 8세대 IT OLED향 보완투자로 하반기에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 아울러 주성엔지니어링의 북미 비메모리향 장비 출하는 24년 말~25년 초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

이익률로 증명하는 본업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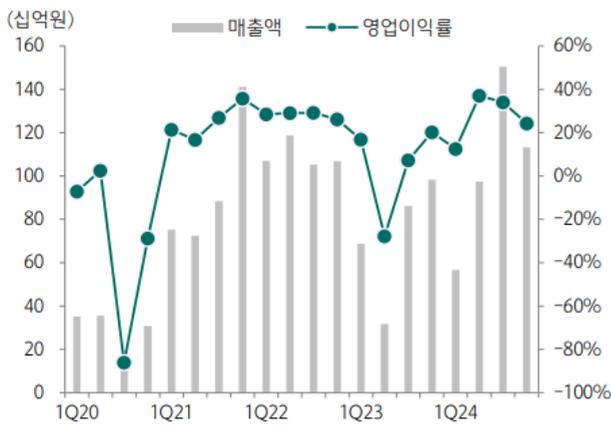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46,000원을 유지. 주성엔지니어링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난 1주간 8.7%, 1개월간 28.8% 하락했고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만, 본업의 경쟁력은 이익률로 증명되었으며 국내 고객사향 장비 출하 확대는 25년까지 이어지며 영업환경이 개선될 전망.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규제 관련 동맹국은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로 중국향 매출비중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되었다고 판단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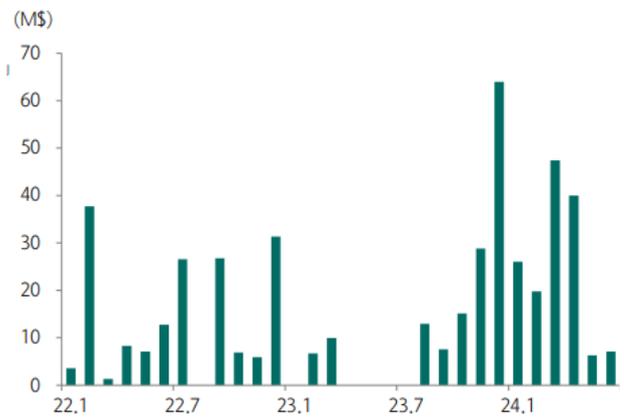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437.9	284.7	417.5	553.5
영업이익	123.9	28.9	121.7	161.1
세전이익	135.1	44.7	140.4	178.9
순이익	106.2	34.0	114.5	136.0
EPS	2,200	705	2,396	2,876
증감율	(27.06)	(67.95)	239.86	20.03
PER	4.82	48.51	10.48	8.73
PBR	1.04	3.10	1.84	1.53
EV/EBITDA	3.06	32.81	7.18	4.67
ROE	24.86	6.80	20.06	19.65
BPS	10,199	11,017	13,617	16,369
DPS	193	50	125	159

도표 3. 주성엔지니어링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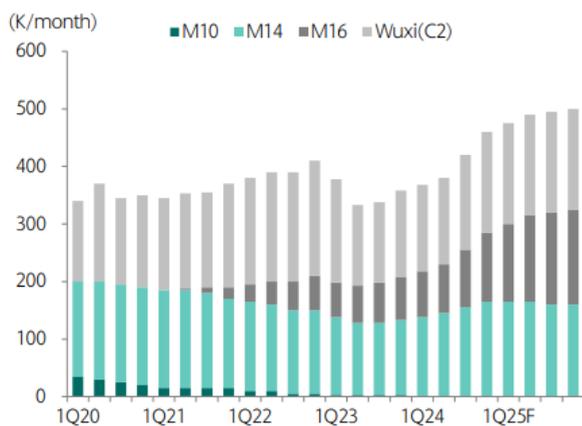
자료: 주성엔지니어링, 하나증권

도표 4. 경기도 광주 - 중국 증착장비 수출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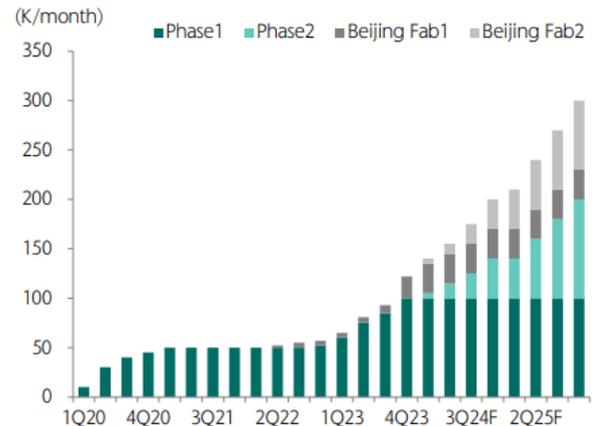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5. SK하이닉스 DRAM Capa 추이



자료: Trendforce, 하나증권

도표 6. CXMT DRAM Capa 추이



자료: Trendforce, 하나증권



엘앤에프

연내 적자 지속 전망

[출처] IBK투자증권 이현욱 애널리스트

24년 2분기, 컨센서스 하회

엘앤에프의 2Q24 매출액 5,548억원(QoQ -12.7%), 영업이익 -842억원(QoQ 적자지속), OPM -15.2% (QoQ +16.9%p)로 컨센서스(매출액 6,680억원, 영업이익 -660억원)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최종 고객사의 투자 속도 조절 및 제품 변경으로 인해 제품별 출하량은 NCMA90 QoQ -24% 감소하였지만, NCM523이 QoQ +63% 증가하여 2분기 출하량은 QoQ +3% 증가했다. 2분기 제품별 판가는 NCMA90 QoQ -14%, NCM523 QoQ -16% 하락함에 따라 ASP는 QoQ -15% 하락했다. 수익성은, 높은 원가 재고 소진을 지속하며 500억원 규모의 재고평가환입이 발생되었으나 출하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24년 3분기, 지속되는 부진

엘앤에프의 3Q24 매출액 4,230억원(QoQ -23.8%), 영업이익 -570억원(QoQ 적자 지속), OPM -13.5% (QoQ +1.7%p)로 컨센서스(매출액 8,005억원, 영업이익 52억원)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방 수요 둔화에 따른 EV향과 ESS향 양극재 출하량이 동시 감소하며 3분기 양극재 출하량은 QoQ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ASP의 경우 메탈 가격 하락 안정화에 따라 가이드언스를 +3% 제시했다. 고정비 부담에 따른 적자는 연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흑자전환 시점은 4Q24 신제품 출시 및 물량 회복 영향으로 분기 기준 1Q25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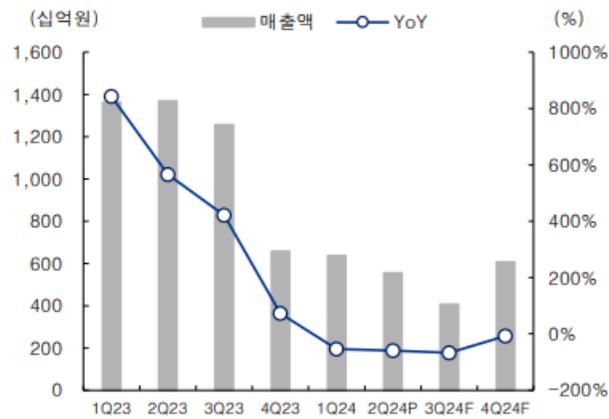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70,000원 하향

엘앤에프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목표주가는 170,000원으로 하향한다. 1H24에 이어 2H24도 실적 부진이 예상되나, 신규 폼팩터 출시 효과 및 최종 고객사의 수요가 4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어 4분기를 기점으로 재고 소진과 실적 개선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3,887	4,644	2,280	4,176	5,625
영업이익	266	-222	-383	121	309
세전이익	341	-296	-404	39	175
지배주주순이익	270	-194	-355	33	143
EPS(원)	7,526	-5,372	-9,781	907	3,939
증가율(%)	-313.4	-171.4	82.1	-109.3	334.4
영업이익률(%)	6.8	-4.8	-16.8	2.9	5.5
순이익률(%)	7.0	-4.2	-15.7	0.8	2.6
ROE(%)	28.3	-16.4	-38.6	4.3	16.9
PER	23.1	-38.0	-10.4	111.9	25.8
PBR	4.9	6.7	5.0	4.8	4.0
EV/EBITDA	23.7	-48.0	-19.2	33.7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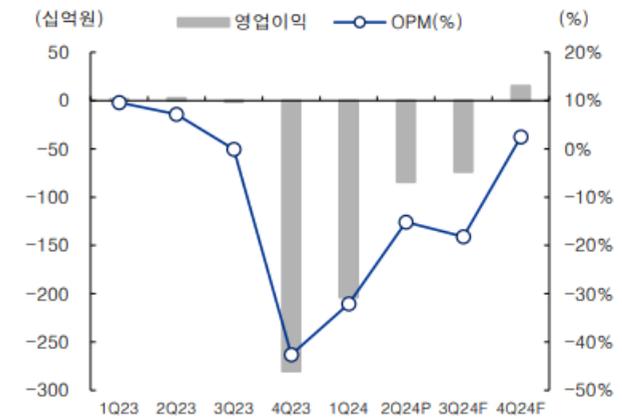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엘앤에프 매출액 및 YoY 추이



자료: 엘앤에프, IBK투자증권

그림 2. 엘앤에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엘앤에프, IBK투자증권



파크시스템스

순항 중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출하 호조로 2Q24 깜짝 실적 기록

2Q24 매출액은 447억원(74%QoQ, 13%YoY), 영업이익은 127억원(2,391%QoQ, 26%YoY)을 기록, 각각 컨센서스 대비 18%, 43% 상회하였다. 일부 전 분기로부터 이월된 산업용 AFM 매출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출하 실적이 좋았다. Hybrid-WLI 1대를 포함하여 대부분 NX-Wafer 위주로 산업용 AFM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8.4%(26.5%pt QoQ)로 호전되었다. 2Q24에도 4백억원대(EUV 마스크 리페어 1대 포함)의 신규 수주가 있었으며, 2Q24말 수주 잔고도 8백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호한 수주 흐름, 올해 수주 16%YoY, 매출액 20%YoY 성장 전망

하반기 들어서도 수주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신규 수주 금액은 1,775억원(16%YoY)을 예상한다. 3Q24에도 출하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다, 3Q24 매출액은 474억원(6%QoQ, 46%YoY)으로 예상된다. 상저하고 실적 패턴을 고려할 때, 올해 매출액은 20%YoY 성장이 전망된다. 한편 해외 비메모리 고객사로부터 테스트 종료 이후 최근 2대의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를 수주한바 있는 데, 향후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로부터 추가 수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22만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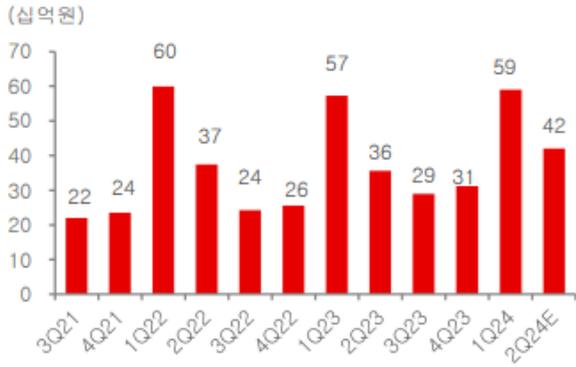
최근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 부각으로 동사 주가는 역사적 P/B 밴드 저점까지 하락했다가, 호실적 공시로 반등한 상태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전방산업 수요 전망은 불투명하나, 반도체 산업 내 AFM 수요 영역은 지속 늘어나고 있어 동사는 꾸준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Fig. 1: 파크시스템스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125	145	174	200	233
영업이익	33	28	40	49	59
세전이익	32	27	41	51	61
순이익[지배]	28	25	39	46	57
EPS(원)	4,034	3,530	5,632	6,632	8,121
증감률(%)	197.7	-12.5	59.5	17.8	22.5
PER(배)	28.2	49.1	30.1	25.5	20.9
PBR	6.5	8.3	6.4	5.1	4.1
EV/EBITDA	21.0	36.2	24.7	20.0	16.2
ROE(%)	26.7	18.7	24.1	22.5	22.0
배당수익률	0.4	0.2	0.3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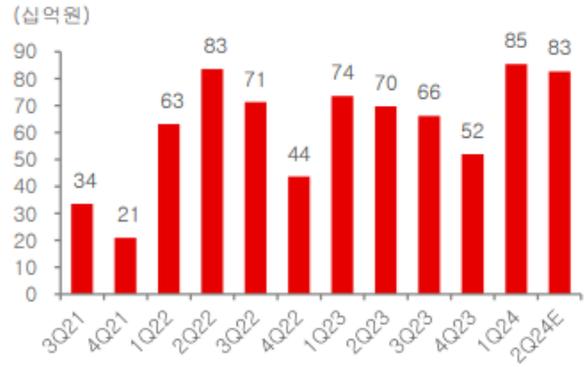
자료: 파크시스템스,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파크시스템스 신규 수주 추이



자료: BNK투자증권

Fig. 3: 파크시스템스 수주잔고 추이



자료: BNK투자증권





한전KPS

예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

[출처]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52,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전KPS 목표주가 52,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했다. 국내 신규 원전은 이미 실적에 대부분 반영되고 있으며 새울 3,4호기도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이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향후 LNG,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화력 부문 외형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다만 체코 등 신규 원전 수주가 가시화되었고 다른 프로젝트들의 후속 호기들도 구체화될 경우 국내 매출의 불확실성을 해외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PER 9.3배, PBR 1.2배다.

2Q24 영업이익 744억원(YoY +52.3%)으로 컨센서스 상회

2분기 매출액은 4,28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원자력/양수 부문의 계획예방정비공사 실적 증가로 인한 외형 성장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송변전은 개보수 실적 증가로 매출이 개선되었다. 화력은 예방정비 수행호기수 감소, 대외는 포스코 광양 2발전 성능개선공사 실적의 기저효과로 부진했다. 해외도 저수익 사업장 정리 등의 영향으로 외형 감소가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74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2.3% 개선되었다. 재료비는 대외 공사 감소에 비례하여 줄어들었다. 노무비는 2023년 경영평가 등급 상승에 따른 퇴직급여 관련 비용이 반영되며 증가했다. 경비는 대외 부문 등에서의 매출 축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7.4%로 전년 대비 5.4%p 개선되었다.

원자력 매출 추정의 어려움 확인. 상고하자 실적 전망 유지

전체 매출의 분기 계절성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전력수요 성수기와 비수기 외형 규모 차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원자력/양수 등 주요 부문 매출과 전사 마진에 대한 추정 근거가 불확실한 점은 높은 빈도로 시장 눈높이 대비 실적 추이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있다. 2분기 정비 일수가 1분기 대비

10.2% 늘어났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합리적인 추정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준공호기 수도 2022년 1분기 실적이 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출 추정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 2분기 중에 BNPP 시운전정비공사 계약금액 변경 건을 공시를 통해 확인되지만 원자력/양수가 아닌 해외 부문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회성 요소로 볼 수 없다. 연간 단위 급격한 매출 규모 변화는 제한적인 점과 경영평가 등급 상승 영향이 4분기 집중된다는 점에서 상고하자 흐름의 영업이익 추이를 예상해볼 수 있겠으나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429.1	1,533.9	1,571.8	1,618.0
영업이익	130.6	199.4	223.8	217.6
세전이익	134.6	210.9	231.9	225.6
순이익	100.2	162.7	178.3	173.7
EPS	2,226	3,615	3,962	3,861
증감율	1.50	62.40	9.60	(2.55)
PER	14.91	9.42	9.31	9.56
PBR	1.23	1.20	1.22	1.16
EV/EBITDA	7.35	5.91	5.31	5.25
ROE	8.61	13.08	13.54	12.43
BPS	27,016	28,280	30,220	31,901
DPS	1,305	2,158	2,180	2,120

도표 2. 한전KPS 12M Fwd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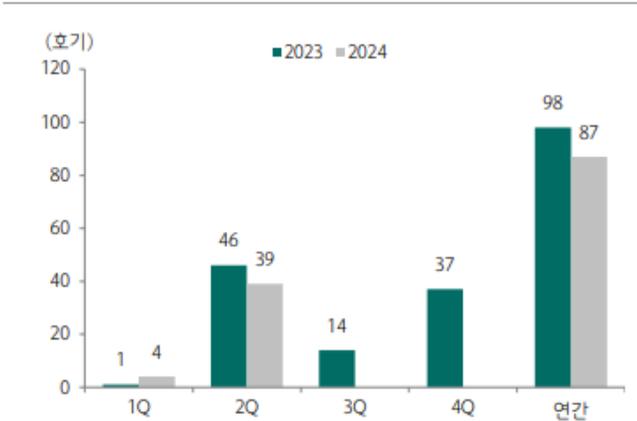
자료: 한전KPS, 마나증권

도표 3. 한전KPS 12M Fwd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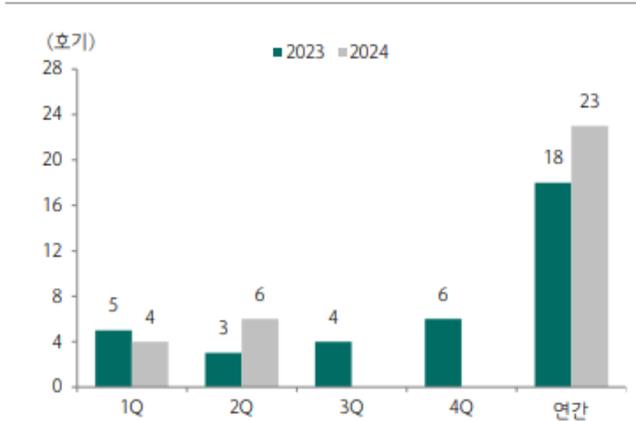
자료: 한전KPS, 마나증권

도표 4. 계획예방정비 실적 - 화력



자료: 한전KPS, 마나증권

도표 5. 계획예방정비 실적 - 원자력



자료: 한전KPS, 마나증권



SK텔레콤

높아지는 이익, 기대되는 AI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웅 애널리스트

2Q24 Review: 끝나지 않는 비용 효율화

2Q24 연결 영업수익은 4.4조원(+2.7% YoY), 영업이익은 5,375억원(+16.0% YoY)으로 높아진 시장 컨센서스(4.4조원, 5,180억원)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유무선 통신의 안정적 성장과 신사업에서의 외형 고성장이 지속됐다. 기저효과와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지만 비용 효율화 역시 이익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 영업수익은 3.2조원(+2.3% YoY), 영업이익 4,504억원(+18.8% YoY)을 기록했다. 2Q24말 5G가입자는 1,623만명, 핸드셋 비중 71%를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2Q23 MVNO 경쟁 대응의 기저효과와 특허권 관련 일회성 이익에 기인해 고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부분은 비용 안정화이다. 당초 예상보다 비용 효율화 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은 7,155억원(-5.1% YoY), 감가상각비는 6,896억원(-3.7% YoY)으로 감소했다. 5G시장 성숙으로 서비스 중심의 경쟁 환경이 지속되는 등 하반기에도 마케팅비와 감가상각비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AI 사업

AI 피라미드 전략을 바탕으로 수익모델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사는 21년 이후 꾸준히 AI 투자를 확대해 왔다. 24년에는 Lamda(2,000만달러), Perplexity(1,000만달러), SGH(2억달러)에 투자했다. SGH의 초대형 AI클러스터 구축 경험과 엣지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GPU as a service, 에너지솔루션을 결합해글로벌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B2B에서는 AICC 등 솔루션을 바탕으로 24년 매출액 목표를 600억원으로 제시했다. B2C 대표 서비스인 에이닷은 멀티LLM 에이전트 탑재 등을 통해 구독형 모델로 진화시킬 예정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이익 추정치 상향에 따라 24년 예상 DPS를 3,640원으로 상향한다. 현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7.0%이다.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5,000원을 유지한다.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2Q24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4,422	2.7	-1.2	4,443	-0.5
영업이익	538	16.0	7.8	518	3.8
세전계속사업이익	478	6.3	8.5	462	3.5
지배순이익	337	2.5	-4.4	340	-0.8
영업이익률 (%)	12.2	+1.4 %pt	+1.1 %pt	11.7	+0.5 %pt
지배순이익률 (%)	7.6	0	-0.3 %pt	7.7	-0.1 %pt

자료: 유인터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17,305	17,609	17,893	18,171
영업이익	1,612	1,753	1,934	2,104
지배순이익	912	1,094	1,227	1,302
PER	12.9	9.6	9.1	8.5
PBR	1.0	0.9	0.9	0.9
EV/EBITDA	4.1	3.8	3.7	3.4
ROE	8.0	9.6	10.6	10.7

자료: 유인터증권



HD현대건설기계

펀더멘털은 양호, 업황 개선이 필요

[출처] 키움증권 이한결 애널리스트

2분기 영업이익 586억원, 컨센서스 하회

2분기 매출액 8,530억원(yoy -17.4%), 영업이익 586억원(yoy -39.3%, OPM 6.9%)를 달성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였다. 이번 분기 실적 부진은 고금리 및 강달러 영향으로 선진/신흥 시장 수요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의 수요가 금리 인하 지연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된 부분이 주효했다. 신흥 시장 역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구매력 악화로 러시아, 터키, 중남미 지역의 수요가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인도/브라질 시장은 인프라 투자 및 신규 제품 출시 효과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매출 볼륨 감소와 지역 믹스 악화, 프로모션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반등의 환경은 마련했지만 매크로 여건 개선 필요

이번 분기 북미/유럽의 선진 시장에서 프로모션 비용 확대에 따른 리테일 판매 촉진으로 딜러들의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추정한다. 하반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에 따른 수요 반등과 더불어 상반기 대비 개선된 영업 환경을 기반으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연초부터 미니 굴착기 등 신규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킨 부분도 하반기 영업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신흥 시장에서는 중남미지사 오픈 및 아프리카 지역의 판매망 강화로 일부 지역에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브라질 지역은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실적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4,000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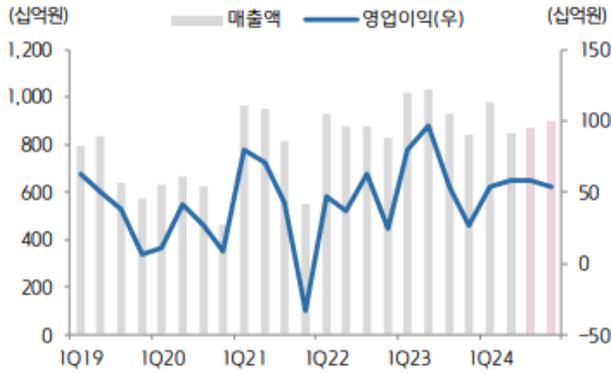
2024년 매출액 3조 5,975억원(yoy -5.9%), 영업이익 2,239억원(yoy -13.0%, OPM 6.2%)을 전망한다. 최근, 미 대선 영향 등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전망했을 때 전후 복구 수요가 과거 대비 2~3배 상승하더라도 실제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러-우 전쟁 종전 시 기존 직수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러시아 매출의 회복과 유럽 지역의 수요 개선이 기대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4,000원을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3,515.6	3,825.0	3,597.5	3,814.4
영업이익	170.6	257.2	223.9	250.6
EBITDA	235.2	324.4	292.1	328.9
세전이익	152.8	190.2	205.8	256.2
순이익	99.4	127.5	152.6	181.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11.5	139.4	157.1	185.5
EPS(원)	5,661	7,077	8,468	10,310
증감률(% YoY)	-1.7	25.0	19.7	21.7
PER(배)	11.0	7.3	6.8	5.6
PBR(배)	0.84	0.65	0.61	0.55
EV/EBITDA(배)	7.4	4.6	4.7	3.7
영업이익률(%)	4.9	6.7	6.2	6.6
ROE(%)	8.0	9.2	9.5	10.3
순차입금비율(%)	19.1	15.6	4.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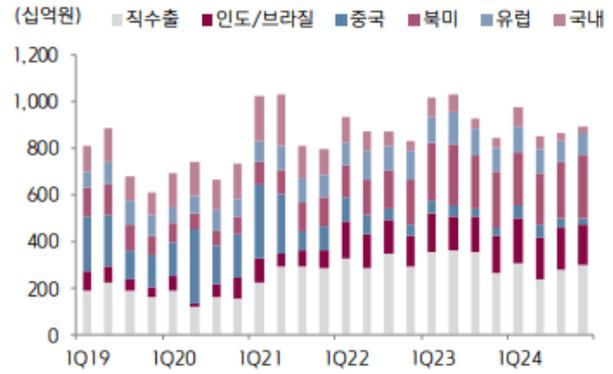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HD현대건설기계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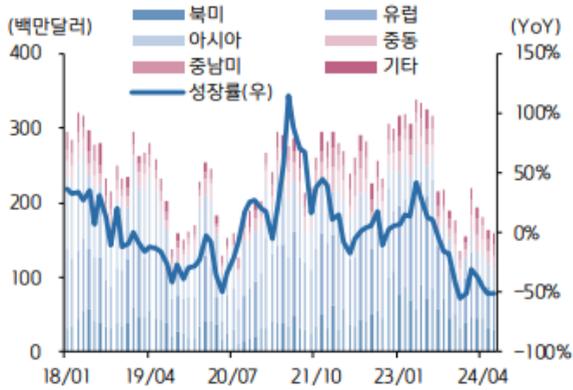
자료: HD현대건설기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HD현대건설기계 부문별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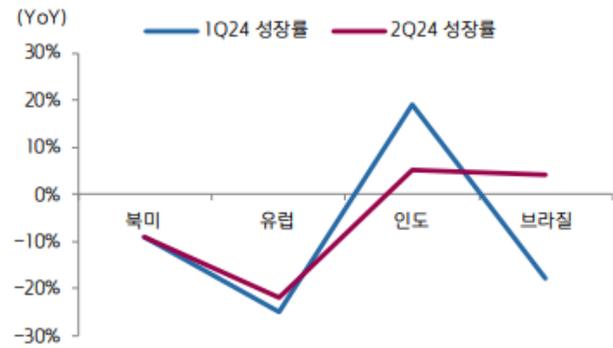
자료: HD현대건설기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대륙별 굴삭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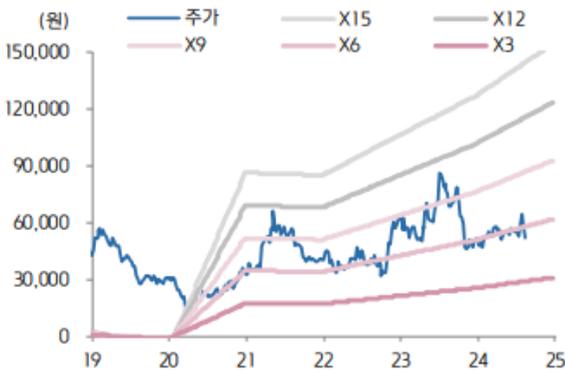
자료: Tras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상반기 주요 지역 건설기계 수요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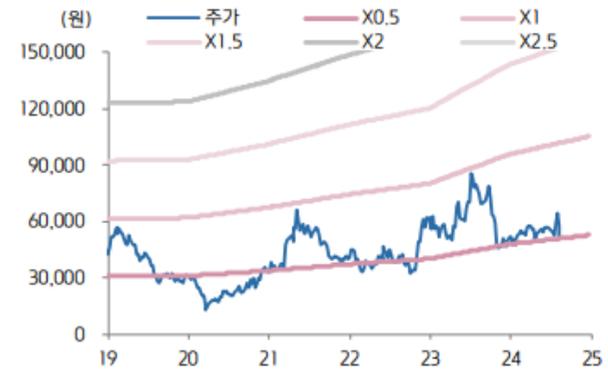
자료: HD현대건설기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HD현대건설기계 12M Forward P/E 밴드 차트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HD현대건설기계 12M Forward P/B 밴드 차트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녹스첨단소재
 중장기 성장성 고려시 현재 과도한 저평가
 [출처] NH투자증권 이규하 애널리스트

아쉬운 스마트폰 고객사 판매 둔화

국내 고객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둔화 및 디스플레이 물량 감소 등을 고려해 실적 추정치를 낮추고 동사 목표주가를 기존 54,000원에서 38,000원으로 하향. 중장기 실적 성장성 및 제품 다변화 등을 고려해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 PER도 글로벌 동종업체들 밸류에이션 하락 고려해 기존 16배에서 12배로 하향

동사는 최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양호한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부진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또한 수익성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며 물량이 소폭 감소하는 영향도 존재. 이를 고려해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기존 추정 대비 8.6%, 6.1% 하향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OLED 고객사 및 제품 다변화, 전기차용 열폭주 필름 등으로 전방산업이 확대되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 특히 매크로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현재 주가는 PER 기준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에 근접. 최근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

전기차 열폭주 필름 성장성에 주목

3분기 영업이익은 당사 기존 추정치 및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208억원(+33.7% y-y)전망. 국내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둔화 및 TV 생산량 조절이 주된 원인. 4분기에는 과거와 달리 전방산업 물량이 증가해 견조한 이익 달성 가능할 것

특히 당사는 하반기 승인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용 열폭주 필름 시장 성장성에 주목. 해당 시장은 10만대 기준 약 1,000억원 규모로 동사 실적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387.0	423.1	473.7	871.8
증감률	-20.9	9.3	12.0	84.0
영업이익	42.2	78.9	90.7	113.8
증감률	-56.6	87.0	15.0	25.5
영업이익률	10.9	18.6	19.1	13.1
(지배지분)순이익	32.8	55.2	61.2	82.6
EPS	1,624	2,728	3,025	4,082
증감률	-61.9	68.0	10.9	35.0
PER	19.7	10.6	9.5	7.1
PBR	1.6	1.3	1.1	0.8
EV/EBITDA	9.9	7.8	7.2	5.1
ROE	8.3	12.8	12.6	13.2
부채비율	40.8	59.2	62.6	52.6
순차입금	-15.1	201.2	217.9	107.9

단위: 십억원, %, 원, 배

